

사천만 연안에 축성된 성(城)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이 전**

사천만은 남해안으로부터 경남 서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다. 사천만 연안에 많은 성(城) 혹은 성지(城址)가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천만 연안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천만 연안에서 사천읍성, 곤양읍성, 성황당산성, 이구산성, 성방리산성, 신벽동산성, 덕곡리산성, 백천동산성, 각산산성, 선진리성, 사동산성지, 금성리 토성, 월성리 토성지, 각산봉수대성지, 안점봉수대성, 침지봉수대성지, 우산봉수대성, 통양창성지, 가산창성지, 장암창성지 등 20여개의 성 혹은 성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을 읍성이라고 분류하였고, 주로 군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한 성을 유사시용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천만 연안에서는 창성이나 봉수대성과 같이 전형적인 읍성이나 유사시용성에 속하지 않는 성도 발견되었다. 성은 축조 재료에 따라 토축성, 석축성, 목책성, 전축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평지성, 산성(산정식·포곡식), 평산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사천만 연안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이 발견되었다.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 혹은 성지는 지역의 문화재 발굴·보존이라는 점에서도 연구의의가 있고, 또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주요어 : 사천만 연안, 읍성, 유사시용성, 평지성, 산성, 평산성

1. 머리말

성(城)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벽(城壁)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성안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 시설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곽(城郭)이라는 말은 '성(城)'과 '곽(郭)'을 합쳐서 칭하는 것으로서 '성'은 내성(內城)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곽'은 군사적인 방어시설인 외성(外城)만을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내성과 외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

며, 또한 '곽'을 생략하고 성만을 쌓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성곽은 성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찍이 세종 때에 양성지(梁誠之)는 '우리 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¹⁾ 1978년 문화재관리국 조사에 따르면 남한 각지에 분포된 성(城) 혹은 성지(城址)가 1,226개에 이르고 있다. 좀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우리 나라의 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성은 우리 조상의 고귀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또한 문헌자료로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 이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자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경남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천만 연안에 축성된 성(城)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될 수 있다. 이렇게 성 혹은 성지에 대한 연구가 문헌사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구분야로서 그 연구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한 편이다. 특히 지리학계의 연구는 몇 편의 논문조차도 찾기 힘들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사천만(泗川灣)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즉 사천만 연안이다 (그림 1). 본 논문에서는 사천만 연안의 범위를 사천만에서 직선거리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천만 연안은 행정구역상으로 사천시에 속한다. 사천시의 행정구역이 사천만을 중심으로 두고 대략 10km 이내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만 연안을 사천시 행정구역과 거의 같은 지역으로 구분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천만 연안은 경남 서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사천만 연안이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성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사천만 연안은 진사공단·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사남농공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매우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사천만 연안의 육상·항공 교통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의 유일한 사천공항이 사천만에 접하여 위치하여 있고, 사천만의 북단에서는 남해고속국도와 대전-통영 고속국도가 교차하고 있다. 근래 사천만 연안은 관광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사천시 대방동에서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대방-창선간 연육교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의 해상경관(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육교의 예술적 조형미가 어우러져 사천시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와 용현면 주문리를 연결하는 사천대교가 완공되고, 사천만 주위를 연계하는 해안도로 건설이 완공되면 사천만 연안은 중요한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성 혹은 성지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래 지역사회에서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가고 있는데, 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 문화재의

발굴·보존이라는 점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천만 연안의 급속한 지역 변화 때문에 귀중한 문화유산인 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지 답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필자는 문헌에 나타나는 성을 현지 답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사천만 연안에서 현지 답사를 하는 가운데 여태까지의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성(백천동산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성 혹은 성지를 답사하여 확인하는 작업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다. 수차례 이상의 현지 답사를 통해서 겨우 성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그 이상의 현지 답사를 통해서도 성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두음별산성)도 있었다. 문헌상에는 등장하지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문헌자료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성의 위치만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성벽이나 성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사등산성지, 월성리 토성지, 침지봉수대성지, 통양창성지, 가산창성지, 장암창성지)도 있었다. 사천만 연안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성 혹은 성지는 사천만의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5~7km 범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선진리성이나 창성(倉城)과 같이 사천만에 접하여 위치하는 것도 있고, 각산산성이나 사등산성과 같이 해안선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는 성도 있으며, 금성리 토성과 같이 해안선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현지 답사를 통해 사천만 연안에서 확인된 성 혹은 성지는 총 20개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능상으로 분류하여 ① 읍성, ② 유사시용성, ③ 왜성, ④ 토성, ⑤ 창성과 봉수대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을 별도의 장에서 고찰하였다. 왜성은 성의 축조 주체에 의한 분류이지만, 왜성은 왜군에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가야시대 혹은 신라시대의 토성은 읍성의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읍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 나라에서 읍성이라고 함은 흔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만을 의미하기 때문

<그림 1> 연구지역 :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성과 성지의 위치

에 토성과 토성지를 별도의 장에서 다루었다.

2. 성의 유형과 성에 부설되는 시설

우리 나라 성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편이기 때문에 성의 유형이나 부속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에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따라서 사천만 연안의 성 혹은 성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 나라 성의 유형과 부속시설 등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우리 나라 성의 유형

전형적인 성곽(城郭)은 네모꼴로 쌓은 성(城)과 다시 그 밖으로 네모꼴로 쌓은 곽(郭)으로 구성된다. 안쪽의 성을 내성(內城)이라 부르고 바깥쪽의 곽을 외성(外城)이라고도 부른다. 도성(都城)인 경우에는 내성을 왕성(王城) 또는 궁성(宮城)이라 부르고 바깥의 외성을 나성(羅城)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인 조건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성곽이 발달하였다. 특히 산지가 많아 산성(山城)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산성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나 양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곽은 축조된 위치에 따라 평지성(平地城), 산성(山城) 등으로 구분한다. 문자 그대로 평지에 축조된 성은 평지성이고, 산악에 축조된 성은 산성이다. 우리 나라 읍성은 평지에 축조하되 대개는 배후의 산등성이를 포용하여 평지와 산기슭을 함께 감싸면서 돌아가도록 축조하였다. 이렇게 축조된 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절충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산성(平山城) 혹은 반산성(半山城)이라고도 부른다. 산성은 위치한 형태에 따라 산정식(山頂式), 포곡식(包谷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산정식 산성은 산정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성벽을 둘러 축조된 성이다. 산정을 중심으로 성벽을 두른 모습이 마치 산에 테를 두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정식 산성은 테포식²⁾(시루식·발원식) 산성이라고도 부른다. 포곡식 산성은 성 내부에 계곡을 내포하고 있는 산성이다. 포곡식 산성의 성벽은 능선을 따라 계곡 부근의 평탄지로 내려와 계곡을 감싸고 다시

능선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복합식 산성은 기존의 산정식과 포곡식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정부에 산정식 산성이 자리잡고 있고 여기서부터 성벽이 확장되어 계곡부를 감싸고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 결합되어 있다.

성곽은 축성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한다. 지방의 행정·경제·군사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읍성(邑城), 유사시에 대비하여 쌓은 유사시용성(有事時用城),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창성(倉城),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기 위한 진보(鎭堡),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都城), 왕이 행차할 때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행재성(行在城), 국경과 요새에 쌓은 행성(行城), 일명 장성(長城)이라고 부름 등은 성의 기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성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용·도피용으로 쌓은 것인데, 이러한 성은 주로 적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산성(山城)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의 유형을 크게 읍성과 산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읍성은 기능에 따른 성의 유형이고 산성은 축조된 위치에 따른 성의 유형이기 때문에 읍성과 산성을 대비하여 분류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사실, 우리나라 읍성 중에는 산성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있기 때문에³⁾ 읍성과 산성을 대비하여 성을 유형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축조된 성을 유사시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념의 혼돈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남해안에는 20여개의 왜식성(倭式城; 왜성)이 있다. 이러한 왜식성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수축(修築)하거나 축조(築造)한 것이다. 정유재란 때 왜군은 육상과 해상에서 패배하여 북진과 서진이 저지되자 남해안 지방으로 퇴각하여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연안에 성을 쌓고 분산하여 주둔하였다. 당시의 왜식성은 구릉의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여 본환(本丸)으로 삼고, 본환을 둘러싸고 이지환(二之丸)과 삼지환(三之丸) 등의 복곽(復郭)으로 축조되었다. 본환·이지환·삼지환 등의 본성(本城)은 구릉에 설치하고, 외곽은 평탄개

활까지 뻗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왜석성은 축조된 위치로 구분한다면 평산성 유형에 속한다.

성은 축조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 토축성(土築城), 석축성(石築城), 목책성(木柵城), 전축성(塼築城) 등으로 구분된다. 흙으로 쌓은 성을 토축성 혹은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 중에는 속에 돌을 넣은 석심토축성(石心土築城)도 있다. 석축성 혹은 석성(石城)은 돌로 쌓은 성을 가리키는데, 성벽의 외면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과 잡석을 넣어 쌓은 성도 석성에 속한다. 목책성은 나무를 세워서 쌓은 성이다. 나무 혹은 나무가지로 만든 목책에 진흙을 발라 담장처럼 만드는 목책성도 있다. 벽돌로 쌓은 성을 전축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성의 일부만 벽돌로 쌓은 경우는 있지만 완전히 벽돌로 쌓은 전축성은 없다.

토성, 석성, 목책성 등을 축조하는 방식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토성의 축조 방식에는 판축기법(版築技法), 삭토기법(削土技法) 등이 있다. 판축기법은 흙을 다져서 쌓은 기법이고, 삭토기법은 성터의 안팎을 깎아 내황(內隍)과 외황(外隍)을 만드는 기법이다. 평지에서는 주로 판축기법에 의해 토성이 축조되었으며, 산지에서는 삭토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석성의 축조 방식에는 협축(夾築) 방식과 내탁(內托) 방식이 있다. 협축은 성벽의 내외면을 모두 수직에 가까운 석벽으로 구축한 것이다. 내탁은 외면만 석축을 이루고 안쪽은 흙과 잡석으로 다져서 쌓아올린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내탁에 의한 석성을 토석축성(土石築城)이라고도 한다. 또한 석성의 축조 방식에는 자연석이나 할석을 쌓아올리는 자연할석축(自然割石築)의 방식과 네모 반듯하게 정방향으로 다듬어진 무사석(武砂石)을 쌓아올리는 무사석축(武砂石築)의 방식이 있다. 목책성은 나무를 세워서 축조하는 성인데, 나뭇가지 부분까지 이용하여 세운 것을 목익성(木杙城) 혹은 녹각성(鹿角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목책이나 목익을 다시 진흙으로 발라 마치 담장처럼 만든 것을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 혹은 벽성(壁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성에 부설되는 시설

성곽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에 부설되는 여러 가

지 시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설 시설로는 성문을 들 수 있는데, 성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안과 바깥이 에스(S)자형으로 굽어들며 들어가도록 된 문을 곡행문(曲行門)이라 한다. 평상시에는 다리를 들어올려 성의 안팎이 통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할 때만 문을 내려 조교(釣橋; 성의 바깥 해자에 놓은 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성문을 현문(懸門)이라고 한다. 성문에는 아치형인 것, 사각형인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웅성(壘城) 혹은 甕城(甕城)은 성문의 보호를 위하여 성문의 바깥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웅성도 반월형, 사각형, 엘(L)자형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성에는 암문(暗門)을 설치하기도 한다. 암문은 상황이 불리하여 몰래 성을 빠져 나가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적이 알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였다가 적을 뒤로 공격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수구문(水口門)은 성안의 물이 빠져나가기 위한 시설이다.

성벽의 윗부분에는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피하고 사혈(射穴 : 활이나 노(弩)를 쏘는 구멍)을 통하여 외부의 적을 쏘는 시설인 여장(女牆)이 있다. 여장은 여첩(女堞) 혹은 타첩(堞堞)이라고도 하며, 평여장(平女牆)·철여장(凸女牆)·요여장(凹女牆) 등의 종류가 있다. 또한 성의 부속시설로는 적대(敵臺)가 있는데, 이는 성벽에 바짝 다가붙은 적을 사각으로 공격하기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망루(서양 성곽의 rampart)처럼 먼 곳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적대는 성벽보다 바깥으로 내어 쌓은 것으로 네 모퉁이는 성우(城隅)라 한다. 바깥으로 돌출한 모양이 반원형이면 곡성(曲城), 네모꼴이면 치성(雉城)이라고 한다. 이 때 적이 치성이나 곡성에 바짝 다가 붙을 때를 대비하여 따로 현안(懸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현안은 성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도록 미석(眉石 : 성벽 맨 윗부분에 바깥으로 나오도록 얹힌 돌)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성곽에서 성벽 다음으로 중요한 방어시설은 성황(城隍)일 것이다. 성황은 해자(壕字), 참호(塹濠), 구(溝) 등의 방어시설을 지칭한다. 해자는 성벽 주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방어시설이다.

3. 사천만 연안의 읍성(邑城)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335개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수록된 것은 96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도별로 보면 경상도(27개소), 전라도(20개소), 평안도(16개소), 충청도(15개소), 함길도(8개소), 강원도(6개소), 황해도(4개소) 순으로 나타난다. 중종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330개의 행정구역 중에 읍성이 160개로 증가하였다.⁴⁾ 읍성의 축조가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대부터인데, 사천만 연안의 사천읍성과 곤양읍성은 둘다 바로 세종대에 축조된 읍성이다. 곤양읍성과 사천읍성은 외면만 석축을 이루고 안쪽은 흙과 잡석으로 다져서 쌓아올린 내탁에 의한 석축성이다.

1) 사천읍성(泗川邑城)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선인리 그리고 산성공원 일대를 포함하는 전 지역이 옛 읍성지(邑城址)이다. 사천읍성은 경상남도 도지정기념물 제1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천읍성은 조선 세종(世宗) 24년(1442년) 병조참판(兵曹參判) 신인손(辛引孫)이 왕명에 의해 축성한 성이다. 이로부터 3년 뒤인 세종 27년(1445년) 봄에 공청(公廳), 공무를 보는 집) 등 모든 건물을 짓고 읍 소재지를 정동면 고읍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사천읍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점거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선조 32년(1598년) 9월 28일 조선 군대와 명나라 원군이 합동작전을 펴서 왜적을 몰아내었다.

『문종실록』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 정분(鄭芬)이 상계(上啓)한 기록⁵⁾에 “사천현 읍성의 둘레는 3,015척⁶⁾이고, 성벽의 높이는 평지가 11척5촌이고 높고 험한 곳이 10척5촌이다. 적대가 15개 있고, 성문이 셋인데 웅성이 있으며, 여장은 580개 있다. 성안에는 우물이 일곱이며,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상도속찬지리지』 사천현조⁷⁾에는 “현성은 을축년(즉, 세종 27년(1445년))에 쌓았는데, 석축의 둘레는 3,015척이고 높이는 15척이다. 성안에 군창이 있고 샘과 우물은 겨울과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⁸⁾, 『증보문헌비고』⁹⁾, 『사천읍지』¹⁰⁾

등에서는 읍성의 둘레가 5,015척이고, 높이는 15척이며, 여장이 630개라고 한다. 처음의 기록에는 성 둘레가 3,015척(약 913.5m)이고 성 높이가 10.5~11.5척이며 여장이 580개이지만, 후기의 기록에는 성 둘레가 5,015척(약 1,519.5m)이고 성 높이가 15척이며 여장이 630개이다. 성 둘레가 길어지고 성 높이가 높아지며 여장이 많아진 것은 조선 초기의 읍성에 증축(增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사천시 사천읍에 위치하는 산성공원은 옛 사천읍성 성터의 일부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 있다. 사천읍성의 성벽 석축은 산성공원내의 성벽 부분만 남아 있고, 평지 부분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성벽을 대략적으로 등글게 연결시켜 볼 때, 현재의 사천초등학교 전체와 현재의 사천시장 일부가 성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사천읍성의 동문은 산성공원의 동쪽에 그 위치가 남아 있으나, 남문과 서문은 그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 아마도 현재의 사천초등학교 정문 가까이에 남문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사천시장 부근에 서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남문지가 평화2동 사무소 옆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7년부터 착수한 산성공원내 정화사업으로 성벽을 재축성하였고, 성안에 연못 두 곳을 마련하여 분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말끔하게 가꾸었다. 또한 산성공원 정상부에 거대한 팔각정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자체(사천시와 사천읍)는 공원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곽의 보존·복원에는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사천읍성의 동쪽 성벽 약 100m와 북쪽 성벽 150m를 부수고 재축성하는 과정에서 성벽은 원래의 위치를 따라 축조하였지만 성벽 축조에 사용한 돌은 원래의 돌이 아니었다. 원래의 돌보다는 훨씬 큰 돌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천읍성은 원형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재축성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에는 산성공원의 남서 방향에 기존의 성벽 위치가 결코 아니었던 곳을 따라 150여m의 성벽을 쌓음으로써 사천읍성을 마치 둘레 600~700m의 산정식 산성으로 만들었다.

2) 곤양읍성(昆陽邑城)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城內里) 일대가 옛 읍성터이다. 성내리의 '성내'는 성 안쪽이라는 뜻이며, 남문외리(南門外里)의 '외리'는 성 밖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곤양읍성은 세종 3년(1421년) 7월에 쌓기 시작하여 세종 12년(1430년) 12월에 도순무사 최윤덕(崔潤德)이 완공시킨 성이다.¹¹⁾ 『경상도속찬지리지』 곤양군조¹²⁾에는 “읍성은 지난 경술년(1430년)에 쌓았는데, 성 둘레가 3,765척(약 1,140m)이고 높이가 12척이며, 성안에 여름·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 셋과 샘 셋이 있고 또한 군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곤양읍지』 성지조¹³⁾에서는 “석축의 둘레는 3,765척이고, 높이는 12척이며, 여첩은 767개 있다. 동·남·북의 문 셋과 웅성 열여덟이 있고, 성안에는 우물과 샘이 각각 3개와 2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옛 곤양군은 세종대왕과 단종의 태실이 봉안된 고을이었다. 이로 인하여 군으로 승격되어 곧 읍성을 쌓았다. 곤양읍성은 임진왜란 동안에 사천읍성과 마찬가지로 왜군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며 하룻밤을 묵으면서 도원수부(都元帥府)에게 보낼 장계(狀啓)를 보전한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 곤양읍성의 성지가 주거지로 변하여 평지에 있던 석축은 길이 수십여m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배후 야산의 능선에는 길이 200m이상의 석축이 남아있다. 이 능선상의 성곽은 비록 많이 훼손되었지만, 석축의 위치나 규모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뚜렷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능선상의 석축이 복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적 가치가 클 것으로 본다. 과거의 형방(刑房) 앞에 심었던 비자(櫃子) 나무 두 그루가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대 곤양군수들의 선정과 공덕을 기리는 비석(碑石)이 즐비하게 서 있어 그 옛날의 영고성쇠를 말해 주고 있다.

3) 성황당산성(城隍堂山城, 일명 고읍성(古邑城))

성황당산성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와 사남면

화전리의 경계를 이루는 성황당산(城隍堂山; 해발 고도 209m)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성황당산성은 고읍성이라고도 부른다. 오늘날 성황당산 북쪽 기슭에 위치하는 마을을 고읍리(古邑里)라고 부르는데, 고읍리와 고읍성은 서로 연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성황당산성은 1993년 12월 27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성황당산성은 성곽의 둘레가 1,109m가 되는 산정식 산성이다.

사천의 성황당산이라는 명칭은 원래 고을을 지키는 성황신(城隍神; 서낭신)을 모시고 제사 지낸 당(堂) 또는 단(壇)이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유래한다. 『고려사 절요』 성종 15년(996년) 병신조(丙申條)에 “가을 7월에 옥(郁; 태조의 여덟째 아들)이 사수현(泗水縣; 사천)에서 죽었다. 옥은 문장을 잘하고 풍수에 정통하였다. 일찍이 아들 순(詢; 뒤에 왕위에 올라 현종이 됨)에게 금 한 주머니를 비밀히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금을 술사(術師)에게 주어 현의 성황당 남쪽 귀퉁이에 장사지내고, 장사할 때 시체를 덮어 묻게 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¹⁴⁾ 이 기록으로 보아서 사천의 성황당은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천의 성황당이 고려 초기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사천의 성황당산성이 고려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경상도지리지』 도내산성조(1424년)¹⁵⁾와 『세종실록지리지』 사천현조(1454년)¹⁶⁾에는 “성 둘레가 588보(1보는 약 1.8m이므로 약 1,058m)이고, 성안에는 샘이 하나, 작은 못이 두 개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서 성황당산성은 세종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사천현 고적조(1530년)¹⁷⁾, 『증보문헌비고』(1782년)¹⁸⁾, 『경상도읍지』(1832~1895년)¹⁹⁾에는 “성황당산성의 석축 둘레가 1,941척(약 588m)이고, 성안에는 샘과 못이 각각 하나씩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여지』²⁰⁾, 『대동지지』²¹⁾, 『영남읍지』²²⁾, 『경상도여지집성』²³⁾ 등에서도 둘레가 1,941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서 성황당산성의 초기 기록과 후기 기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성황당산성의 둘레는 1,109m이기 때문에²⁴⁾ 성황당산성의 초기 기록과 부합하고 있다. 그런데

성황당산성의 초기 기록과 후기 기록에서 산성의 둘레가 심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후기 기록에서 말하는 둘레는 성의 석축(石築)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황당산성의 일부는 석축으로 쌓고 나머지는 토축(土築)으로 쌓은 산성이라면 이것이 타당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남쪽으로는 흙으로 3.5m 되는 높이를 쌓은 흔적이 남아 있고, 북쪽으로는 가파른 언덕에 쌓은 석축이 많이 훼손된 채로 남아 있다. 둘째, 성황당산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서 초기 기록은 외성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고 후기 기록은 내성의 둘레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내성에 샘과 못이 하나씩 있었고 외성에 못이 하나 있었다면 이러한 추정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다. 사실, 성황당산성 안에는 내성의 성벽일 수 있는 급사면이 있어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후기 기록이 단순히 오기일 수 있다. 조선초기에 이미 폐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의 둘레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앞의 문헌을 통해 후기 문헌을 기록하였다면, 오기가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

성황당산성의 축성연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고고학보(韓國考古學報)』(1984년 간행)와 『가야문화권정밀조사보고서』(1988년 간행)는 성황당산성을 삼국시대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고학적 시굴트렌치 조사에 의해서도, 성황당산성은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의 이구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쪽으로 동문지(東門址)를 확인하였는데, 동문지는 좌우 3매씩 납작한 자연대석으로 된 초석을 갖추고 맨 바깥쪽의 초석 2매는 문루를 설치했던 화돌이었다. 이 문은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성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문(懸門) 형식으로 목조 문루를 갖추고 있었다.²⁵⁾ 또한 가야토기편,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 고려청자편, 조선초기의 분청사기편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와편이 채집되었다.²⁶⁾ 이와 같이 성황당산성은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축조되어 조선전기까지 사용하였던 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읍성의 기능과 기능변화

우리 나라에서 읍성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왜구의 침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²⁷⁾ 왜구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고려 충정왕 2년부터 공양왕 40년까지 40여년간이었다. 이 때의 성곽 축조는 고구려의 산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상책이라는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산성을 수리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으나, 읍성의 축조도 병행하였다. 고려 후기에 축조된 연해읍성이 29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23개소가 경상도에서 축성되었다. 사천 고읍성이 이 당시에 축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간에 이 당시에 읍성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 당시에는 흔히 테피식 혹은 포곡식 산성을 읍성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사천만 연안의 사천읍성과 곤양읍성은 다같이 조선 세종대에 축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읍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천읍성과 곤양읍성은 각각 현재의 사천읍과 곤양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금세기의 시가지 확장으로 성곽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두 성은 배후의 야산에 의지하여 성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반산성 포곡식의 형식으로 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읍성은 평지에 성곽의 1/2 이상을 축성하고 나머지 성곽은 배후에 있는 야산의 능선을 따라 축성하였다.

배후의 야산에 성곽을 축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방어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배후 야산의 지형지물을 이용함으로써 방어상 유리한 지형을 따라 성곽을 축조한 셈이 된다. 둘째, 성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배후의 야산을 성의 내부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략상의 요충지를 성안에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배후의 야산 정상부는 성의 안과 밖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서 전시에 지휘 본부를 둘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데, 이러한 최적의 위치를 성안에 확보할 수 있다.

성황당산성은 사천만 일대를 널리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성황당산성은 해발고도 200여m나 되는 산의 정상부에 쌓은 테피식 산성이다. 성황당산성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성이지만, 시대적 변천에 따라 이 성이 갖는 본래의 방어 기능은 차츰 상실되었다. 사천읍성이 축성된

이후에는 주로 봉수대 기능과 종교적 기능이 이 성의 주된 기능으로 되었다. 성황당산성은 사천읍성이 축조되기 이전까지 사천 행정치소(行政治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다시 말해, 이 성은 조선 세종 27년(1445년) 사천읍성을 완공하기 이전까지 사천의 읍성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성황당산성이 읍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이 성은 흔히 부르는 말 그대로 사천 고읍성(古邑城)인 것이다.

4. 사천만 연안의 유사시용성(有事時用城)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시용성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용·도피용으로 쌓은 성이다.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20여개의 성과 성지 중에 6개의 성을 유사시용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천만 연안에 축조된 유사시용성은 주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한 것이지만, 대개의 유사시용성은 그 축성연대가 불분명하다. 사천만 연안의 유사시용성은 위치상으로 볼 때 예외없이 산성에 속한다.

1) 이구산성(尼丘山城)

이구산성은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이구산(尼丘山; 해발고도 378.2m) 정상에 위치하는 산정식 산성이다. 이구산은 성황당산과 능선으로 연결된다. 공자(孔子)가 태어난 산의 이름이 이산(尼山)이기 때문에, 이구(尼丘)라는 말은 공자를 다르게 부르는 칭호이다. 옛날 이구산 아래 성례동(聖禮洞)에는 선비들이 많이 살았는데, 성인 공자를 흠모하여 이산의 이름을 이구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이구산성을 쌓은 연유는 명확하지 않다. 근래 발간된 문헌에서는 고려 말엽 왜구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성이라고 전하고, 성벽의 둘레가 3,300척(약 1km)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⁰⁾ 그러나 현재 석축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석축의 흔적을 통해 본 성둘레는 약 400m에 달한다. 이구산성은 이구산의 정상부를 둥그렇게 감싸고 축성되었는데, 샘터(우물터)를 확보하기 위해 남동쪽 일부분만 성벽이 약간 낮은 지대까지 확장하여 축조되었다. 이구산성

의 북사면과 남사면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석축을 낮게 쌓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동쪽과 서쪽 부분만 능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석축을 높게 쌓아 방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성방리산성(城方里山城)

성방리산성은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딱발골 마을에서 남서 방향으로 600~700m 떨어진 산(해발고도 245.8m)의 정상에 위치한다. 산의 정상을 한 바퀴 돌면서 석축 및 토축으로 축성된 성방리 산성은 둘레가 약 1km인 산정식 산성이다. 산성의 동쪽 낮은 곳에는 지름 5m가 넘는 샘이 위치한다. 대부분의 석축은 붕괴되어 성곽의 흔적만 남기고 있으나, 서쪽 방향의 급사면에는 길이가 4~5m 이상이나 되는 석축이 십여 군데나 잘 남아 있다. 전해 온 바에 의하면,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 쌓은 것으로 '산성산' 또는 '석장대'라 불리기도 하였다고 한다.³¹⁾

3) 신벽동산성(新碧洞山城, 삼천포진성(三千浦鎭城))

근래 발간된 문헌³²⁾에는 이 성을 삼천포진성이라고 칭하지만, 이 성의 유래와 기능을 밝혀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 산성의 명칭을 이 성의 소재지를 따서 신벽동산성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본다. 신벽동산성은 해발고도 약 670m되는 와룡산 줄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서 둘레가 약 500m된다. 이 산성은 와룡산 줄기의 높은 봉우리 암괴를 성벽으로 삼고, 여기서 뻗어내린 두 능선을 석축과 자연 암괴로 연결한 다음에 이를 다시 계곡부근까지 연결하여 축성한 것이다. 성의 내부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평지가 그리 넓지 않다. 성 가운데의 저지대에는 둘레가 약 50m, 높이가 약 2m의 장방형의 석축이 남아있는데, 이는 일종의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의 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발간된 문헌에서는 이것을 내성으로 보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내성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신벽동산성은 높고 깊은 산속에 위치하여 비교적 훼손이 덜 된 채로

남아 있다. 천연의 암벽을 이용하고 보완하여 성벽을 구축한 것이 이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근래 발간된 문헌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신벽동 산 23번지에 삼천포진성이 있는데, 이 성은 “해발 약 700여m의 와룡산 정상에 둘레 약 60m, 높이 약 2m의 석축으로 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바깥으로 둘레 약 500m, 높이 1m의 석축이 외성을 이루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십여 차례나 와룡산을 답사한 다음에야 마침내 이 성을 찾을 수 있었다. 와룡산(해발고도 798.6m)은 사천만 연안에서 가장 험준하고 높은 산이며 또한 다수의 높은 봉우리를 갖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와룡산에서 하나의 산성을 찾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근래 발간된 문헌자료들의 내용이 결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천포진성의 존재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사실, 와룡산 기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과 면담을 하였지만 이 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 성의 높은 지점에서는 사천만 일대가 훤히 내려 보이기 때문에 이 성은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4) 덕곡리산성(德谷里山城)과 백천동산성(白川洞山城)

덕곡리산성과 백천동산성은 덕곡리계곡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성들을 ‘성(城)면당’ 혹은 ‘산성(山城)면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덕곡리산성은 덕곡리 부곡(釜谷)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2km, 덕곡리 덕곡저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에 떨어진 해발고도 약 340m의 산정에 위치한다. 그리고 백천동산성은 백천사와 백룡사의 가운데에 있는 해발고도 약 300m의 산정에 위치한다. 두 산성은 일종의 산정식 석축성인데, 덕곡리산성의 석축은 대부분 붕괴되어 있지만 백천동산성의 석축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두 산성은 둘레가 각각 약 60m에 불과한 소규모 산성으로서 규모가 작고 석축이 조잡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산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초소에 가까운 편이다.

두 산성은 소규모 산성이지만 주위에 장애물이 없어 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한다. 특히 덕곡리

산성은 주위의 평야뿐만 아니라 멀리 사천만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산성들은 백운동(白雲洞) 백천사(白天寺)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임진왜란 당시에 절을 지키기 위하여 구축한 성이라고 전해오기도 한다. 삼우(三愚) 강인황(姜仁瑬)의 『와룡산기(臥龍山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³³⁾

백운동에 백천사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백천사 주지 의선대사(義善大師)가 의병장이 되어 승병 200명을 이끌고 왜적을 맞아 싸워 이를 격퇴하였다. 이로 인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싸움터를 난곡(亂谷)·돌파치(突破峙)·퇴병산(退兵山)·파병산(破兵山)·성문등(城門磴) 등이라 일컬어 온다.

5) 각산산성(角山山城)

각산(角山)은 사천시 삼천포항 부두에서 북서북 방향으로 약 2.5km(직선거리) 떨어져 있는 해발고도 398.2m의 산인데, 각산산성은 성의 둘레가 242m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성으로서 해발고도 230m 되는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각산산성은 사천만과 삼천포항 부근의 남해연안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각산산성은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되었다.

각산산성은 백제의 30대 무왕 6년(A.D.605년)에 축성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진주목본백제거열성(晉州牧本百濟居列城)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진주가 일정 기간 동안 백제의 영토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가 가야제국을 병합할 무렵에 백제는 진주지방의 고령가야를 공취하여 거열성을 두었다. 그리고 백제는 무왕 6년 2월에 진주의 남쪽 76리(里)에 각산성을 쌓았는데, 이 각산성이 바로 오늘날의 각산산성인 것이다.³⁴⁾

각산산성은 고려시대에는 삼별초난(三別抄亂)을 토벌하는 데도 활용하였으며, 왜구의 침범이 잦았던 시기에는 이 일대의 주민들의 피신처로도 사용되었다.³⁵⁾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있어서 근래 들어서 복원을 하였다. 각종 향토문화 자료에는 남쪽 성문이 원형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산성은 샘터(혹은 우물터)를 성 내부에 확보하고 있으나, 각산산성은 성안에 샘터가 없다. 이것은 삼국시대 전쟁의 양상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삼국시대 전쟁이 주민 총동원령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전사계급(혹은 지배민족)에 의한 전투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산성의 규모가 후대의 것에 비하여 작고 물과 식량의 보급 문제는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우리 나라 성곽에 대한 연구가 좀더 축적되어야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사천해전과 선진리성, 그리고 사등산성

선진리성은 1963년 1월 21일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선진리성 공원에는 사천해전에서 승전을 거둔 충무공 이순신의 군공(軍功)을 기리기 위해 사천해전승첩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천만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이 최초로 거북선을 투입하여 왜적을 무찌른 곳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사천만에 접하여 위치하는 선진리성은 왜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선진리성은 고려시대부터 있던 통양창성(通陽倉城)을 왜구들이 개수하여 사용한 성이다.

1) 사천해전(泗川海戰)

선조(宣祖) 25년(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 5월 왜군이 선진리성에 상륙하여 진을 쳤다. 1592년 5월 29일 사천만의 선진리성 앞바다에서 사천해전이 벌어졌는데, 이 해전에서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은 거북선을 처음으로 투입하여 적의 함선 12척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기타지마(北島万次)는 사천해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³⁶⁾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은 우후(虞侯; 우수사) 이몽구(李夢龜)와 함께 전선(戰船) 23척을 이끌고서 출진하여 노량(露梁) 앞 바다에서 전선 3척을 이끌고 왔던 원균의 경상우수군(慶尙右水軍)과 합류하

었던 것이다... 경상·전라 양수군이 합류한 뒤 일본 수군의 배 한 척이 곤양(昆陽)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도망치고 있었다. 이순신의 선봉 제장(先鋒諸將)인 방담첨사(防踏僉使) 이순신(李純信)과 남해현령(南海縣令) 기효근(奇孝謹) 등이 그 배를 쫓아 갔는데, 일본군이 육지로 올라가 달아나므로 그 배에 충돌하여 태워버렸다.

사천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은 지형이 험준한 곳에 연하여 긴 뱀과 같이 진을 치고, 산정에 진을 두고서 장막(帳幕)을 설치했다. 해안에는 누각(樓閣)이 같은 모양의 배 12척이 홍백(紅白)의 깃발을 나무끼면서 정박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이 이 선박을 공격하려 하여도 화살이 닿지를 않았다. 또한 선박을 태우려 하여도 썰물 때문에 판옥선(板屋船)에는 충돌할 길이 없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은 높은 곳에 있고, 조선군은 낮은 곳에 있어 지형이 불리하다. 우리가 퇴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군은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므로 먼바다에 나아가 이를 격멸하자.”고 제장(諸將)에게 전하고 배를 후퇴시켰다. 그러자 일본군은 수륙(水陸)으로 나누어 추격해 왔는데 그 때 조류가 바뀌어 사천만(泗川灣)은 만조가 되었다. 이에 거북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순신은 왜구(倭寇)의 내습(來襲)에 대비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고안했던 것이다. 그것은 전두(前頭)에 있는 용두구(龍頭口)에서 대포를 발사할 수 있고, 귀갑(龜甲)이 되는 배의 덮개에는 도추(刀錐)를 박아 놓았고, 배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일찍이 15세기 초에 거북선의 발안이 있었지만 이를 실전(實戰)에 처음 사용한 것은 이 전투였다. 거북선을 선두로 한 조선 수군은 천자총(天字銃)·지자총(地字銃) 등의 화기를 사용하여 사천의 일본선을 당파분멸(撞破焚滅)시켰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 및 군관봉사(軍官奉事) 나대용(羅大用) 등이 조총에 맞았고, 전봉사(前奉事) 이설(李濬)이 화살에 맞았지만 위험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2) 선진리성(船津里城)

선진리성은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사천만과 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사적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 이 성은 서·남·북의 삼면이 바다에 에워싸이고, 동쪽 한면만 육지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는 남·북의 양면이 간척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 방면으로만 바다와 접하고 있다. 1597년 1월 왜적은 우리 나라에 다시 쳐들어와 사천 선진에 왜채(倭寨)를 구축하고 그들의 소굴로 삼았다. 한편 이에 맞선 우리 측 군대는 명나라 중로제독(中路提督) 동일원(董一元)이 이끄는 병력 26,000여 명과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정기룡(鄭起龍)이 거느린 조선군 2,000여 명이었다. 동일원은 1598년 9월 20일 진주를 공략함으로써 왜군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동일원은 진주를 탈환한 다음에 왜군을 추격하였는데, 9월 28일에는 사천성(泗川城)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에 왜군은 패주해 사천 선진왜채(船津倭寨)로 들어갔다. 선진왜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실로 공략하기 어려운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10월 1일 이른 아침부터 동일원이 지휘하는 조명(朝明) 연합군은 선진왜채를 포위하여 공격하였고,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명 연합군의 폭약궤(爆藥櫃)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왜군은 일시에 각종 총포(銃砲)를 쏘면서 성밖으로 역습해 나왔고, 조명 연합군은 왜군을 쳐부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선진왜채의 왜군은 그 해 11월 16일에 철수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선진리성은 사천신채(泗川新寨) 혹은 신성(新城) 혹은 왜성(倭城)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런데 왜군이 선진리성에 주둔하기 이전에 원래 통양창성(通洋倉城)이 있었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숙종대(肅宗代 : 1675~1720년)에 이르러 선진리성에 진보(鎭堡)를 설치하고 이곳을 전선소(戰船所)라 명하였다. 이 전선소에는 전선(戰船), 병선(兵船), 정탐선(偵探船) 등의 군선을 배치하여 바다를 지켰으나, 구한말 때 폐지되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인(日本人)들은 선진리성을 그들의 조상들이 쌓은 성이라고 하여 선진리 성에 빛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었다. 오늘날 선진리성의 해안가에는 헛집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3) 사등산성

사등산성은 사천시 사등동 사등만에 인접한 산의 산정에 위치하는 테피식 산성으로서 둘레는 약 300m에 달한다. 사등산성은 근래 발간된 문헌³⁷⁾에 언급되고 있으나 다른 사료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일반적인 유사시용성에서 발견되는 우물터가 이 산성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등산성은 사천만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유사시용성과는 많이 다르다. 이 산성에서 왜구들의 유품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사등산성은 왜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근래 발간된 문헌 중에서도 사등산성이 임진왜란 때에 왜군들이 축성하여 사용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사등산성을 왜성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근래 제작된 축척 1 : 50,000 지형도에서도 사등산성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사등산성은 토축과 석축을 겸하여 축성한 성으로 추정된다. 북쪽 사면에서 붕괴된 석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남쪽 사면에서는 석축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6. 토성(土城) 혹은 토성지(土城址)

사천만 연안에는 금성리 토성이나 월성리 토성지와 같이 축조연대가 오래되어 그 성의 축조 목적을 밝히기 어려운 성도 있다. 이러한 토성은 행정·경제·군사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읍성의 개념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토성은 고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의 성인지 아닌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토성이 고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의 성이었다면, 이러한 성이 성읍국가 단계의 전형적인 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1) 금성리 토성(金城里土城)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에 있는데, 성곽의 대부분을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남강의 지류인 덕천강이 북서 방향에서 흘러들어와 북동 방향으로 흘러 나

가면서 금성리 토성지를 감싸고 흐른다. 그러므로 금성리 토성지의 삼면을 덕천강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성리 토성지의 동쪽·남쪽 경계는 하천에 의하여 형성된 절벽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성리 토성지는 천연의 요새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금성리 토성은 산의 능선에 성곽을 쌓고 가운데의 골짜기를 포섭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곡식 산성의 유형에 가까운 성이다.

성지의 둘레는 약 2km이며, 넓이는 약 8,000평인데, 지금은 약 1km 이상의 토축(土築) 흔적이 남아 있다. 성을 쌓은 시기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으나, 원삼국시대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성리 토성지는 사천만의 수로와 관련되는 성이라기보다는 남강-덕천강의 교통로, 혹은 남강-덕천강 유역의 범람원 평야와 관련있는 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월성리 토성(月城里土城)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산 13번지에 위치한 소규모 토성이다. 근래 발간된 자료에서는 어느 시대의 성인지 분명하지 않은 성인데, 토성의 둘레가 약 500m이고 넓이가 약 900평이라고 한다.³⁸⁾ 현재로는 토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만 월성리 지내 마을에서 월성리 토성의 성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20여m가 되는 토축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경작지 확장에 따라서 혹은 주위에 사남농공단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 월성리 토성의 동쪽으로 약 2km 지점에 성황당산성이 위치하고, 주위에는 5~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고분의 유적이 산재한다.³⁹⁾ 이 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명이 월성이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봉수대성(烽燧臺城)과 창성(倉城)

사천만 연안은 교통·군사의 요지였기 때문에 다수의 봉수(烽燧)와 창(倉)이 있었는데, 이러한 봉수와 창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수대성과 창성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1) 봉수대성

봉수대(봉화대)는 산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을 통하여 통신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천만 연안에는 각산봉수대(角山山城臺), 안점봉수대(鞍岾烽燧臺), 침지봉수대(針枝烽燧臺), 성황당봉수대(城隍堂烽燧臺), 우산봉수대(牛山烽燧臺) 등이 있었다. 성황당봉수대와 침지봉수대는 조선 세종 때 안점봉수대를 설치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연해와 변경지방의 봉수대에는 봉졸(烽卒) 12명씩을 두었는데, 이들은 봉화대 근처에 살면서 오직 망보는 일에만 종사하였다.

침지봉수대는 사천시 용현면과 사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봉대산(烽臺山; 해발고도 약466m) 정상에 위치한다. 침지봉수대는 위치만 확인될 뿐이고 봉수대의 모양은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 다만 침지봉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 50여m의 석축은 붕괴된 채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봉대산 정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을 따라 약 1km 떨어진 작은 봉우리(해발고도 288)에 안점봉수대가 자리잡고 있다. 안점봉수대는 사천시 용현면 신북리에 위치하는데, 1997년 12월 30일 도지정 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되었다. 안점봉수대는 근래에 복원되었는데, 둘레가 약 60m이고 높이가 약 1.5m인 석축으로 에워싸여 있다. 우산봉수대는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와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의 경계를 이룬 남산(133.1m)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이 봉수대는 안점봉수대와 같은 시기에 설치된 봉수대로 1997년 12월 30일 도지정 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었다. 둘레가 약 65m이고 높이가 약 0.5m인 석축이 복원되어 안점봉수대를 둘러싸고 있다. 각산봉수대는 각산의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각산봉수대성의 석축은 각산봉수대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성황당봉수대는 원래 성황당산성의 내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성황당봉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현재는 성황당봉수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2) 창성

사천만은 고대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중요한 해상교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 성종 11년(992년) 전국에 13개(처음에는 12개)의 조창(漕倉)이 설치되었는데, 경상도에는 사천(당시는 사주)에 통양창(通陽倉)이 그리고 마산(당시는 합포)에 석두창(石頭倉)이 설치되었다.⁴⁰⁾ 조세미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조창이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성(城)을 축조하여 조창의 운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천만의 통양창에도 통양창성(通陽倉城)이 축조되었다. 통양창성은 현재의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성 안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통양창성은 성둘레가 3,086척(약 935m)에 달하는 토축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¹⁾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서 선진리성은 통양창성을 수축하여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사천의 통양창은 조선시대에는 통양창(通洋倉)으로 존속하다가 조선 태종 3년(1403년)에 폐창되었다. 태종 3년에 경상도의 조운선 34척이 한꺼번에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상도에서 조운제도를 폐지하고 세곡을 모아 육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광해군 대에 들어와서는 연안의 20여개 고을에서 선박을 임대하여 세곡을 상납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진양지(晉陽誌)』에 의하면,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⁴³⁾에 있는 장암창(場巖倉)은 당시 상경미를 선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판단되어 신설되었으며, 이에 속한 지역은 모두 진주에 소속된 9개 리(里)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암창은 진주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들의 세곡도 함께 선적하여 중앙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세 운반에는 과적(過積)과 고선가(高船價)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조 35년(1759년) 9월 조창제를 다시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해 11월에 경상도 좌·우 조창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⁴⁴⁾와 창원 마산포에 설치하였다. 가산리의 가산창(駕山倉)은 1894년 동학란으로 파괴되었다. 오늘날 장암창과 가산창의 위치는 밝혀져 있지만, 그것들의 건물과 성벽은 경지화, 도로 건설, 택지화 등으로 인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8.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다양한 성 혹은 성지의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성은 군사적인 목적과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을 읍성이라고 분류하였고, 주로 군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한 성을 유사시용성이라고 규정하여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사시용성을 산성이라고 부르지만 산성은 성의 위치에 따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 나라 읍성 중에는 산성에 속하는 성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유사시용성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사천만 연안에서는 전형적인 읍성이나 유사시용성에 속하지 않는 성과 성지를 왜성, 토성, 창성과 봉수대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사천만 연안의 성들은 산지(山地)·산능선(山稜線)에 축성되거나 혹은 산기슭이나 해안에 접하여 축성되었다. 사천만 연안의 성들은 이와 같이 지세를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천만 연안의 산성은 위치한 형태에 따라 산정식·포곡식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산정식인지 포곡식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산정식 산성이라도 성황당산성, 이구산성, 성방리산성과 같이 성벽의 일부가 다소 낮은 지대를 포함하여 샐터(혹은 우물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성벽이 산의 정상부를 완전한 원형으로 두르고 있지 않게 된다.

성은 축조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 토축성, 석축성, 목책성, 전축성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천만 연안에는 토축성과 석축성이 발견되지만 전축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들은 그 성축이 무너져 훼손이 많이 되었기에 성축의 축조 상태를 지표조사만으로는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성문터, 여장, 웅성, 곡성, 치성, 현안, 미석, 성황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고고학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위치·규모·형태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천읍성, 곤양읍성, 선진리성, 각산산성 등은 문헌상으로 축성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성들은 축조 연대가 불분명하다. 또한 대부분의 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축, 개축, 증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천만 연안에서 비교적 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것은 사천읍성, 곤양읍성, 성황당산성, 이구산성, 성방리산성, 신벽동산성, 덕산리산성, 백천동산성, 각산산성, 선진리성, 사동산성지, 금성리 토성, 월성리 토성지, 각산봉수대성지, 안점봉수대성, 침지봉수대성지, 우산봉수대성, 통양창성지, 가산창성지, 장암창성지 등 20개 성 혹은 성지이다. 백천동산성은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성으로서 필자가 발견한 성이다. 월성리 토성은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서 그 성벽이라고 추정되는 토축의 단편을 확인하였으나, 이 토축이 월성리 성벽의 흔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임진왜란 때에 왜구가 축조한 선진리성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통양창성을 개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선진리성과 통양창성을 별개의 성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가산창성지와 장암창성지는 그 위치만 확인될 뿐 성곽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사천만 연안의 성(城) 혹은 성지(城址)를 소개하는 문헌들이 다수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A: 문화유적총람』, 『B: 한국의 성곽과 봉수』, 『C: 조선성곽일람』, 『D: 사천군지』, 『E: 향토문화유적』, 『F: 사천의 문화유적』, 『G: 경상남도의 향토문화』 등을 들 수 있다.⁴⁵⁾ 그런데 문헌 『A』, 『B』, 『C』, 『G』가 서로 매우 유사한 내용을 실고 있고, 문헌 『D』, 『E』, 『F』도 서로 유사한 내용을 실고 있다. 문헌 『A』, 『B』, 『C』, 『G』에서 혹은 『D』, 『E』, 『F』에서 분명하게 잘못 서술된 내용도 동일하게 거듭 실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문헌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헌에 나타난 오류 중에서 네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A』, 『B』, 『C』, 『D』, 『E』, 『F』, 『G』에는 이구산성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성둘레는 약 1km이라면서 “지금은 허물어지고 약 50m 내외의 석축만 남아있다.”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구산성의 성둘레는 약 400m이었고, 성둘레 전체의 석축이 비록 많이 파괴되었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둘째, 문헌 『A』, 『B』, 『C』, 『G』 등에는 금성리 토성의 둘레가 약 200m이고, 성벽의 높이는 1m, 너비는 1.5m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성리 토성지의 둘레는 약 2km이고 또한 약 1km에 달하는 토축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셋째, 문헌 『A』, 『B』, 『C』, 『G』에는 삼천포진성(신벽동산성)을 내성과 외성이 있는 성으로 기록하고 있고, 내성의 둘레를 60m이고 외성의 둘레를 500m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천포진성에는 내성이 없다. 삼천포진성의 가운데에는 둘레가 약 50m, 높이가 약 2m의 장방형의 석축이 남아있는데, 이는 일종의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의 벽이 남아 있는 것이지 결코 내성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문헌 『D』, 『E』, 『F』에는 두음벌산성(豆音伐山城)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두음벌산성은 산정식 산성으로 둘레 약 220m의 토석을 혼축하여 쌓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다수에 걸쳐 현지 답사를 수행하였지만, 두음벌산성의 위치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두음벌산성에 대한 기록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사천만 연안의 성 혹은 성지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 문화재 발굴·보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래에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천만 연안 지역은 관광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다양한 성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천만 연안에 산재하는 성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필자가 한 편의 논문으로 20여개의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성곽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 우리 나라 성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註

- 1) 반영환, 1978, 한국의 성곽(교양국사총서 30), 교양국사총서 편찬위원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p.3.
- 2) 폐회식 산성을 퇴매식 산성이라고도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 3) 산정식 산성으로는 舒川 古邑城, 保寧 古邑城, 瑞山 古邑城, 海美 古邑城, 新昌 古邑城, 定山 古邑城 등이

사천만 연안에 축성된 성(城)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 있고, 포곡식 산성으로는 結城邑城, 沔川 古邑城 등이 있다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362.).
- 4)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 5) 『文宗實錄』 卷九: 泗川縣邑城周回三千十五尺 高平地十一尺五寸 高險處十尺五寸 敵臺十五 門三有甕城 女塼五百八十 城內井七 壕字未鑿.
 - 6) 1척이 약 30.3cm임.
 - 7) 『慶尙道續撰地理志』 泗川縣條: 縣城乙丑 石築周回三千十五尺 高十五尺 有軍倉 井泉冬夏不渴.
 - 8) 『新增東國輿地勝覽』 泗川縣條: 邑城石築周五千十五尺 高十五尺.
 - 9)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泗川邑城條: 邑城石築周回五千十五尺 高十五尺 女塼六百三十 甕城三 內有井四池二.
 - 10) 『泗川邑誌』 城地條: 城堞周回五千十五尺 高十五尺 女城六百三十 堞 甕城六 城門東西南三門 池二庫井四庫.
 - 11) 사천군, 1990, 泗川郡誌, 사천군지편찬위원회 편자,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 인쇄, p.880.
세종 1년에 柳廷顯에 의하여 연안 지방 읍성 축조가 제안되었고, 세종 3년에는 敬差官을 파견하여 邑基을 審定하도록 하였으며, 세종 11년에는 병조판서 崔閔德을 충청·전라·경상도의 都巡撫使로 삼아 3도의 城堡를 축조·수축하도록 하였다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p. 418-419).
 - 12) 『慶尙道續撰地理志』 昆陽郡條: 邑城去庚戌年石築 周廻三千七百六十五尺 高十二尺 井三泉三冬夏不渴 有軍倉.
 - 13) 『昆陽邑誌』 城池條: 郡城 石築周回三千七百六十五尺 高十二尺 女塼七百六十七 有東南北門 甕城十八 內有三井二池.
 - 14) 鄭相東, 1996, 正東面誌, 정동면지편찬위원회, 기민인쇄사, pp.679-681.
 - 15) 『慶尙道地理志』 道內山城條: 城隍堂山城在泗川周廻五百八十八步 廣四結六十一 泉一小池二.
 - 16)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泗川縣條: 城隍堂石城在縣南二里 高險周回五百八十八步 內有泉一池二 有軍倉…烽火二處針技在縣南 南准晉州角山鄉主山北准縣城隍堂 城隍堂 北准晉州望晉山.
 - 17) 『新增東國輿地勝覽』 泗川縣 古跡條: 城隍山城 石築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內有一泉一池.
 - 18)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城郭慶尙道條: 城隍山城 在南五里石築 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今廢 內有井一池一.
 - 19) 『慶尙道邑誌』 第十九冊 泗川縣邑誌 古蹟條: 城隍山城 石築 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內有一井一池.
 - 20) 『東國輿地志』 慶尙道 泗川 古蹟條: 城隍山城 石築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內有一泉一池.
 - 21) 『大東地志』 卷十 慶尙道八邑 泗川 城池條: 古城 南五里 稱城隍山城 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川一池二.
 - 22) 『嶺南邑誌』 第三十一冊 泗川縣邑誌 城郭條: 城隍山城 石築 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內有一泉一池.
 - 23) 『慶尙道輿地集成』 泗川郡 古蹟條: 城隍山城 周回一千九百四十一尺 內有一井二池.
 - 24) 鄭相東, 1996, 正東面誌, 정동면지편찬위원회, 기민인쇄사, p.690.
 - 25)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p.190-191.
 - 26)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192.
 - 27)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p.412-413.
 - 28)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p.412-413.
 - 29) 沈正輔, 1994, 韓國 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p.193.
 - 30)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37.
오필근, 1997, 泗川의 文化遺蹟,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54.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編),” 朝鮮學報 103輯, p.181.
김석원,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발행처), 코리아헤럴드 인쇄, p.483.
 - 31)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38.
오필근, 1997, 泗川의 文化遺蹟,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55.
 - 3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중권), p.459.
김석원,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코리아헤럴드 인쇄, pp.386-387.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編),” 朝鮮學報 103輯, p.181.
 - 33) 사천군, 1990, 泗川郡誌, 사천군지편찬위원회, p.885.
 - 34)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p.34.
 - 35)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p.3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중권), p.459.
 - 36) 北島万次, 1999, “壬辰倭亂과 李舜臣: 泗川海戰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제8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pp.205-238.
 - 3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중권), p.460.
김석원,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코리아헤럴드 인쇄, pp.383-384.

3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증권), p.584.

39) 慶尙大學校 博物館, 1998, 泗川 月城里 古墳群(경상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제18집), 경상대학교 박물관.

40) 『高麗史』 卷七十九 食貨志 漕運條 : 國初南道水郡 置十二倉 忠州曰德興 原州曰興元 牙州曰河陽 富城曰永風... 泗州曰通陽 合浦曰石頭.

41) 『新增東國輿地勝覽』 泗川縣 古蹟條 : 通洋倉城在縣南十七里 土築周三千八十六尺 即舊收稅之地.

42) 金俊亨, 1996, “泗川 柳川里 濟民倉址 考察”, 사천 유천리 제민창지(경상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제15집), 경상대학교 박물관, pp.111-133.

43) 당시는 진주 夫火谷面의 浦口였다.

44) 당시는 진주 가산포였다.

4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中卷), 文化財研究所 편찬, 天豐印刷社 인쇄.

김석원,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발행처), 코리아헤럴드 인쇄, pp.383-487.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編)”, 朝鮮學報 103輯, p181.

사천군, 1990, 泗川郡誌, 사천군지편찬위원회 편자,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 인쇄, pp.874-889.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p.34-43.

오필근, 1997, 泗川의 文化遺蹟,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pp.53-58.

김강식, 1999, “경상남도의 관방,”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pp.714-717.

문헌

慶尙大學校 博物館, 1998, 泗川 月城里 古墳群, 경상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제18집, 경상대학교 박물관.

곽철홍·이전, 1997,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행태 연구: 진주 도시권지역의 통근-역통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3-34.

김강식, 1999, “경상남도의 관방,”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714-717.

김석원,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한국보이스카우

트연맹, 코리아헤럴드 인쇄.

金俊亨, 1996, “泗川 柳川里 濟民倉址 考察”, 사천 유천리 제민창지, 경상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제15집, 경상대학교 박물관, 111-13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中卷), 文化財研究所 편찬, 天豐印刷社 인쇄.

閔德植, 1991, “三國時代 築城法에 관한 몇 가지 試考”, 국사관논총, 39, 국사편찬위원회.

朴鍾益, 1994, “경남지역의 고대산성에 관한 연구”, 경상사학, 10, 경상대학회, 1-32.

반영환, 1978, 한국의 성곽(교양국사총서 30), 교양국사총서 편찬위원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변태섭, 1998(4판6쇄), 한국사통론, 삼영사.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伽倻文化圈精密調査報告書(사천군·하동군), 부산대학교박물관.

北島万次, 1999, “壬辰倭亂과 李舜臣: 泗川海戰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5-238.

사천군, 1990, 泗川郡誌, 사천군지편찬위원회 편자,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 인쇄.

孫永植, 1987, 韓國城郭의 研究, 文化財管理局.

沈正輔, 1994, 韓國邑城의 研究: 忠南地方을 중심으로, 學研文化社.

오필근, 1998, 향토문화유적,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오필근, 1997, 泗川의 文化遺蹟, 사천문화원 발행, 문화인쇄사 인쇄.

이전·곽철홍, 1999, “사천만 연안의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 교통·수산업·공업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9-132.

全榮來, 1988, “고대산성의 발생과 변천”, 마한·백제문화, 11,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鄭相東, 1996, 正東面誌, 정동면지편찬위원회, 기민인쇄사.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경상남북도편)”, 朝鮮學報, 103輯.

최영준, 1990, 영남대로: 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A Historical Geography of the Castles in the Sacheon Bay Region*

Lee, Jeon**

The Sacheon bay region functioned as a strategic place as the bay provided a major sea-route leading to the Kyungnam province. So it is no wonder that a number of castles and walls were located in such an outlying post of strategic importance. In the bay region there are found Sacheon, Gonyang and Seonghwangdang town castles, Yeegu, Seongbangri, Shinbyukdong, Duckgockri, Baekcheondong and Gaksan military castles, Seonjinri and Sadung Japanese castles, Kumseonri and Wueolseongri mud walls, Gaksan, Anjeom, Chimzi and Usan beacon-post walls, and Tongyang, Gasan and Jangam warehouse walls (사천읍성, 곤양읍성, 성황당산성, 이구산성, 성방리산성, 신벽동산성, 덕곡리산성, 백천동산성, 각산산성, 사동산성지, 선진리성, 금성리 토성, 월성리 토성지, 각산봉수대성, 안점봉수대성, 침지봉수대성지, 우산봉수대성, 통양창성지, 가산창성지, 장암창성지).

Castles are,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classified into two: town castles and military castles. In the former castles people live permanently, but in the latter people do not. Military castles are occupied only in time of emergence. Beside the two types, two Japanese castles, two old mud walls, four beacon-post walls, and three warehouse-post walls are found in the Sacheon bay region. Castles are also classified into plain castles and mountain castles according to their location. Mud, stone, wood, and brick materials were used for castle and wall building.

As the castles and walls of the bay region are precious cultural assets, they should be preserved and protected with much attention.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 the future they can be the most valuable tourist attractions all arou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